

[사회]

경력 5년 미만 법관 단독재판 못 맡는다

광주지법, 개인회생·파산 담당 재판부 신설

앞으로 법조 경력 5년 미만의 법관은 단독재판을 맡지 못하는 등 단독재판부가 대폭 강화된다.

광주지법법원은 1일 법원조직법 시행에 따라 예비판사 제도가 폐지돼 법관이 늘어남에 따라 재판부 2곳을 신설하는 등 법원 사무분담을 개편했다.

광주지법은 그동안 7개 형사단독이 분담해 처리하던 약식명령에 대한 재판청구사건을 전담하는 1개 재판부

(형사12단독)를 신설했으며, 개인회생·파산 사건담당 재판부 1곳도 새로 만들었다. 또 민사 단독재판부도 ▲소액 1 ▲고액 1개를 각각 늘렸다. 기존의 형사 9단독은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부인(否認)사건 전담재판부로 변경했다.

법원은 특히 이날부터 경력 5년 미만의 법관은 변론을 열어서 진행하는 단독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즉결심판에도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은 법관 부족 현상으로 인해 일부 단독 재판부의 경우 5년 미만의 법관들을 배치해왔었다.

최인규 판사는 “예비판사 제도의 폐지로 인해 법관 운용의 여유가 생겨 기존 합의부 배석판사 일부를 단독판사로 증원해 단독 재판부를 증설하는 방향으로 사무분담 개편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법은 이날 예비판사 11명이 모두 판사로 임명됨에 따라 소속 법관이 총 74명으로 늘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빗속 노동자 결의대회

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남 창원으로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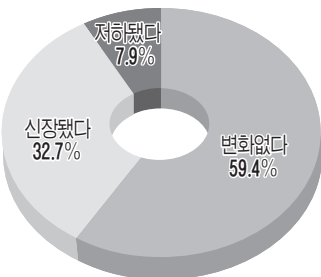
1일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제117주년 세계노동절 정신계승 광주·전남지역 노동자 결의대회'. 노동자 800여 명이 이날 행사 후 '5·1절 남북노동자 통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남 창원으로 떠났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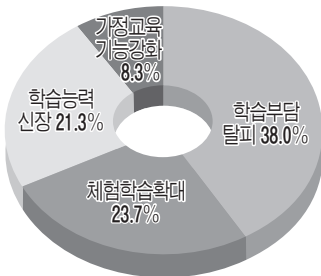
광주 학생 25% '외로운 놀토'

33%가 “놀토 실시 후 학력 늘었다”

■'놀토' 실시 후 학력 변화



■'놀토'의 효과



보했다(38%) ▲체질학습 기회가 확대됐다(23.7%) ▲자기주도에 따른 학습능력이 신장됐다(21.3%) ▲가정교육 기능이 확대됐다(8.3%) 순이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의 절대다수(87.2%)는 '놀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시교육청은 이번 설문 조사를 토대로 '놀토'에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의 지도 및 학습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 초·중·고등학생 4명 중 1명은 '놀토'(쉬는 토요일, 매월 둘째 주·넷째 주 토요일)에 보호자 없이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15개교 1만1천43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25%가 '놀토'에 “집에 부모 등이 없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응답자 부모의 34.8%가 “주5일 근무제” 실시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놀토’ 실시 전·후 학력과 관련, 절반이 넘는 59.4%가 “변화없다”고 답했다. “신장됐다”는 반응은 32.7%였으며, 7.9%는 오히려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놀토’ 효과의 경우 ▲과중한 학습부담에서 탈피해 여유를 확보했다(38%) ▲체질학습 기회가 확대됐다(23.7%) ▲자기주도에 따른 학습능력이 신장됐다(21.3%) ▲가정교육 기능이 확대됐다(8.3%) 순이었다.

병역특례 채용대가 ‘無임금’

업체 회계장부 분석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61개 업체 중 일부가 병역특례자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회계 장부를 분석중이다.

검찰은 일부 특례업체에서 병역특례자가 받아야 할 월 100만~200만 원대의 월급이 상당 기간 지급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업체 대표와 병역특례자 등을 소환, 경위를 캐고 있다. 검찰은 특례자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대신 급여를 받지 않는 ‘무임금 노동’이란 신종 수법이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를 받지 않는 ‘무임금 노동’이란 신종 수법이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61곳에 포함된 모바일 게임개발업체 1사의 운영자이자 Y실업촉구팀 단장인 C(31)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C씨가 병역특례 비리에도 연루됐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업체 중에는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한 연구소 3곳 등이 포함돼 있으며 유명 텔레러의 남편이자 가수 출신 K씨가 운영하는 결혼준비업체 A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희뉴스

‘건설사주 납치’ 수사 허점

자금 흐름·범행 동기 못 밝혀

광주 모 건설사 사주 공모(47)씨 납치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폭력조직 부두목 조모(48)씨를 검거, 구속하고도 사건에 연관된 돈의 흐름은 물론, 뚜렷한 범행 동기조차 밝혀내지 못하는 등 수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조씨 검거 후 행동대장 통장에 14억원의 통치돈이 입금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벌였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의 부인을 비롯한 주변 인물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벌였지만,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씨 주변인물들은 그러나 “경찰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에 대해 마구잡이로 계좌추적을 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또 범행동기와 관련, 조씨가 지난 93년 건설회사 사장들에게 그림을 강매한 혐의로 복역한 사실에 비추어 당시 공씨가 조씨에게 불리한

피해 진술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조씨가 출감한 후 자신을 흉내낸 공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동기는 알아내지 못했다.

한편, 경찰은 조씨를 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인도발 항공기 승객 콜레라균 검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월27일 오전 11시55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인도 델리발(發) 항공기 탑승객 중 설사 증상자 1명의 가검물을 검사한 결과, 콜레라균(오가와 형)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연희뉴스

동림 IC~서광주 IC 내일 3차레 차량 통제

호남고속도로 동림IC~서광주IC 구간이 3일 오전 10시5분과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30분 등 3회에 걸쳐 각 10분씩 전면통제된다.

광주시는 1일 “북구 운암동 광주에

술고~분촌산단간 도로 개설 공사 가운데 호남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운암교 가설을 위해 이 시간에 차량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예슬고~분촌산단 간 도로(860m)는 폭 20m(4차로)로, 140억원을 들여 2008년 상반기에 마무리된다. 현재 6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흐린 뒤 맑은 하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차차 맑아지겠다.

광주	차차 맑아짐	9~22℃
전주	차차 맑아짐	10~20℃
대구	차차 맑아짐	11~20℃
부산	차차 맑아짐	10~21℃
서울	차차 맑아짐	7~23℃
인천	차차 맑아짐	8~22℃
대전	차차 맑아짐	8~22℃
충주	차차 맑아짐	8~22℃
청주	차차 맑아짐	10~21℃
포항	차차 맑아짐	7~20℃
울릉도	차차 맑아짐	8~21℃
독도	차차 맑아짐	9~22℃
제주	차차 맑아짐	8~23℃
경남	차차 맑아짐	9~23℃

5월 2일 (음 3월 16일) ◇전국날씨

서울날씨
알바다=서~북서풍 과고 1.0~1.5m
만바다=서~북서풍 과고 1.0~1.5m
남해날씨
알바다=서~북서풍 과고 1.0~1.5m
만바다=서~북서풍 과고 1.0~1.5m
목포 밀물 < 02:05 썰물 < 07:25
14:04 19:28
여수 밀물 < 08:58 썰물 < 02:58
21:26 14:58

▲해돋이 05:41 ▲해질 19:18 ▲달출 05:10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목)	4(금)	5(토)	6(일)	7(월)	8(화)
날씨						
최저/최고	10/25	11/24	14/22	13/22	12/23	12/25

‘탈세 악용’ 부담부 증여 제동

대법 “기준시가 적용 양도세 종과 정당”

높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금을 긴 채 부당산을 물려주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에 재갈을 물리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거액의 주택담보대출금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씩을 가족 2명에게 증여한 A씨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과고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7천900여만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승과구에 거주하는 A씨는 2001년

7월 기준시가(현 공시지가)가 각각 1억2천여만원인 투기지역 내 아파트 2채를 2억4천만원, 2억6천만원에 구입하며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2억5천만원씩 총 5억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2003년 11월 가족 2명에게 대출금 전액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한 후 양도소득세 548만원을 신고, 납부했다.

대법원 3부는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 양도·취득가액은 실질거래가액에 의해야 하지만 A씨의 경우 부담부 증여이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희뉴스

안순일 교육감 “스승의 날 유지해야”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이 ‘스승의 날’(5월 15일)을 폐지 또는 변경하려는 교육계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교육감은 1일 오전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5월 월례조회에서 “최근 ‘스승의 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우려스럽다”며 “스승의 날을 그대로 유지해 스승의 참 뜻을 새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5월15일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탄생일”이라며 “스승의 날을 5월15일로 정한 것은 세종대왕이아말로 겨레의 스승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 교육감은 이어 “스승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교직원 모두 모범을 보여야하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스승이 존경받을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서울”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륙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TV방송출연 교수진/저자직강★

개강 5월 1일 첫진도 시작반 (주간반,야간반)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야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1위! 새롬행정고시학원 ☎361-8111 서구청앞(농성동)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칼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고효율의 복사열 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에 의한 복사열은 시온구 연결
원적외선을 방사하므로 필름효과가 있습니다.
필름난방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원적외선 에너지는 우리 몸 내부를 먼저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난방공사
반도체 도판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칼레오 필름난방은 당일 시공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난방공사를 실현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인심아세요. 타제품 열선대신 탄소면상발열체 사용으로 전자파제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상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TEL.(062)262-0101

KARCHER 독일카치 특별기획전

... 적외선 감지 지능형 로봇청소기

이제 청소는 카치 로보크리너에게 맡기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세요

- 혼자서 청소하고, 충전하고, 쓰레기까지 비웁니다. (충전시간:10분 1시간사용, 타사제품:1시간사용 2~3시간 충전)
- 바닥은 물론 카펫, 방과방사이, 문턱, 침대 밑 청소도 문제 없습니다.
- 흡인력, 최저소음, 쓰레기수집함, 충전재가동, 문턱통과, 추락방지 최고성능인정 (2006년 10월 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시중 판매중인 12개사 제품)

카치는 수십년간 크리닝시스템분야에서 세계적인 명품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 70개국 우수디자인상 수상

Focus Know-how Silber 2005

GOOD DESIGN iF reddot

Hit RC 3000 로봇청소기 Hit K 66 전기빗자루 Hit VR 6100 진공청소기 Hit SC 902 소형 스팀청소기 Hit SC 1102 디럭스 스팀청소기 Hit SC 1502 디럭스 스팀청소기

문의전화 062-655-1022 http://blog.daum.net/karcher